

전북혁신캠퍼스, 맞춤형 취업교육 자리매김

LX공사 등 전북 5개 대학 협업
72명 입사, 채용률 31% 달성

박상래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디지털 대전환을 겨냥해 마련한 전북혁신캠퍼스 공간정보과정이 수요자 맞춤형 취업 교육으로 지역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혁신캠퍼스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과 전북지역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올해부터 전주지역 인제대 합류했다.

이에 따라 전북·제주지역인재 39명은 LX공사 입사에 필요한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교육, CAD실습, 드론코딩 수업과 사업 아이디어 발표회까지 참여했다.

그 결과 여학생들의 안전귀가, 건물해체·터널공사 등을 위한 안전한 발과 관리, 공유키보드 안전주행 등 사회문제 해결방안이 발굴되



었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아이디어 발표대회에서 공유 키보드의 문제점·해결방안을 제시한 정민혁(전북대 3학년)씨는 “QR코드를 활용한 공유 키보드의 주차난·안전 확보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간 정보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데이터란 걸 알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할지 감을 잡았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방학특강과정은 올해 동계방학특강 3개 과정을 무주태권도원에서 공동 개최하여 학생 교류와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LX공사 김기승 부사장은 “올해는 제주도까지 참여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더 큰 의지

를 갖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 공사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LX공사는 지난해 오픈캠퍼스와 지역선도대학 연계과정 등 지역인재육성 정책으로 72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정부가 제시한 지역인재 채용률 30%(22년)을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했다.

경제브리핑

전북중기청, 중기 장기채권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채권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채권 우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장기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전주 효자 엘르디움 에듀파크’는 주식회사 지아이엔씨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동2가 1117-146외 12필지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4세대(확정추천 2세대+예비추천 2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지역 거주자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1일 18시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상래 기자



익산 중소형 농기계 지원

200여대 지원, 1인당 최대 150만원

익산시가 지역 농가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농촌노후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속 영세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액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행관리기, 동력살포기 등 중소형 농업기계 200여대의 구입비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영세농 적용 농업기계(500만원 미만)에 대해 구입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월 8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도가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의 보급으로 농작업 기계화율을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임규창 기자



전북농협, 설날 정(情)나눔 꾸러미

전북농협과 부안농협, 농협부안군지부는 18일 고향주부모임·농가주부모임과 함께 ‘설날 정(情)나눔 꾸러미’ 지원 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눔 행사는 28일까지 도내 13개 시·군지부와 연계해 릴레이로 진행될 계획이다.

정나눔 꾸러미는 영세농업인, 한부모가정, 홀몸어르신 등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원철 조합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농협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농산물 꾸러미로 온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적극적인 봉사와 관심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2022 방방곡곡 온기나눔 RUN』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인과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중소기업 4곳 중 1곳 설 자금사정 ‘곤란’

중기중앙회, 800개 中企 대상 올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800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 자금사정이 ‘곤란하다’ 응답이 26.0%로 ‘원활하다’는 응답 20.4%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2021년 설 자금 수요조사(‘곤란하다’ 38.5%)에 비해서는 자금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매출액과 종사자수가 적을수록 자금사정 ‘곤란하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매출액 10억원 미만(48.7%)과 종사자수 10명 미만(38.1%) 기업이 타 규모에 비해 ‘곤란하다’ 응답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기업(14.7%)보다 내수기업(27.9%)에서 자금사정이 더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자금사정 곤란원인으로는 △판매·매출부진(68.3%) △원·부자재 가격 상승(56.3%) △인건비 상승(31.3%) △판매대금 회수 지연(10.6%) 순으로 응답했

고, 자금사정 곤란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5.6%에 달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 평균 2억 7,150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설(평균 2억 1,490만원) 대비 약 5,66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필요한 설 자금 중 부족한 자금 확보 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50.3%) △금융기관 차입(30.2%) △결제연기(21.1%)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대책없음’ 응답이 21.1%로 지난해 설(10.4%)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 상여금(현금) ‘자금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7.6%에 불과하며, ‘아직 미정’인 업체가 20.0%에 달했다.

잔액 지급시 1인당 평균 44만7000원으로 지난해 설(48만2000원) 대비 3만5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월 지급시 기본급의 60.4%를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 휴무계획에 대해서는 95.0%의 업체가 5일(설 연휴 전체)을 휴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박상래 기자

롯데마트맥스(MAXX) 송천점 그랜드 오픈



누구나 즐기는 도심 속 창고형 할인점 호남지역 1호점 오픈… 접근성 높여

등 스테이크트 규격 상품을 판매한다.

또한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가치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국내산 동물복지 인증 수산물과 친환경 인증 이력관리 성과를 주력으로 운영한다. 롯데마트맥스는 3,000개 수준의 판매 품목수(SKU)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스탑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만들고자 가전전문 매장 및 즉석피자 전문점을 운영한다.

가전 매장 대신 국내 최대 프리미엄 가전 전문점 ‘하이마트’를 입점시켜 가전 토털리빙 매장을 구성하고, 모든 가족이 저렴한 가격에 풍부한 치즈의 향과 맛이 듬뿍 배어있는 대형피자와 음료를 맛 볼 수 있는 48시간 저온숙성 즉석피자 전문점 ‘치즈앤도우’를 입점시켜 가족과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개방형(비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롯데마트맥스’는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오픈 결제와 스마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마트맥스는 국내 신용카드 전 종과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해 폭 넓은 결제서비스를 경험 할 수 있으며, 셀프 계산대와 스마트게이트로 간편 결제가 가능해 결제 시간을 줄였다.

또한, ‘100% 환불제’를 운영해 롯데마트맥스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0%를 전액 환불해 준다.

신원중 롯데마트 호남지역장은 “롯데마트맥스는 주 고객층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매장이자 이다”라며, “전북지역 최초의 창고형 할인점인 만큼 가성비에 가치를 더한 쇼핑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전북은행,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1,600상자 도내 각시·군 독거어르신·저소득가정에 전달 예정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8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

서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 및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서한국 은행장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 박용훈 사무



장, 전북은행 방국봉 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4,00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 1,600상자를 도내 각 시·군을 통해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30여명은 떡갈, 라면, 햇반, 즉석가래, 김, 사탕, 커피, 치약, 칫솔, 물티슈 등 총 10종의 생필품을 담은 선물꾸러미 포장작업 직접 포장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서한국 은행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올해도 연중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 전문위원 위촉

기업 기술·경영 애로 발굴 및 해결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는 18일 도내 기업들의 기술·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컨택센터 전문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전북TP 컨택센터는 도내 기술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장을 위한 맞춤형 온·오프라인 상담 서비스와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 애로해결 단일접점 창구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8인의 전문위원이 위촉됐으며, 전문위원은 경영전략, 공정개선, 기술개발, 마케팅, 세무, 특허전략,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2시간 추진실적을 돌아보고 급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가 이어졌다.

2021년도 컨택센터 전문위원들은 1,941건의 온·오프라인 상담과 288건의 기업현장 방

문 상담, 10회의 지역순회 비즈니스 테이블 행사개최 등 활발한 상담활동 추진을 통해 공모사업 수주 및 매출상승, 신규인력 채용 등 기업성장과 내실강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특히 기업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발굴과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http://jbcc.or.kr)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고, 전북TP 1층의 컨택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북TP 양균의 원장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성장하는 대한민국,
새전북신문도 함께 하겠습니다.

새전북신문
Saejeonbuk Shinmun
국독신문 063) 230-5712